

社說

트럼프 취임, 위기이자 기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했다. 첫날부터 국악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엎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라고 했다. 국무장관 후보자는 "어떤 제재도 김정은이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 발언은 북한 핵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7년 전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고철 수준의 영변 핵 시설과 핵심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 당시엔 그 거래를 막은 참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듯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 후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했다. 대북 특사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동맹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고, 11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인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

다고 했다. 한국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 대미 무역 흑자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스톱'까지 겹치면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방차관 내정자도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이런 의견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나온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다. AI·양자 컴퓨터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 경제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모두 우리 하기 나름이다.

"성전, 십자군, 저항권" 경솔하고 위험한 선동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 시위는 담당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범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에 나와 "시위자들이 7층 판사실 중 유독 영장 심사 방안의 도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난동 사태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자 중에는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란 사실을 새삼 느낀다.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그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성전(聖戰)" "십자군" "저항권" 같은 말로 이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런 당내 인식들이 당에 결국 자해 행위가 될 뿐이란 사실을 모두

가 알아야 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오자 고무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역풍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극단 유튜브들의 자극적 선동이 법원 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브 3명이었다. 이들의 선동은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유튜브를 통한 금전적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는 이들 극단 유튜브들과 한판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결국 자신과 당에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난입이 국민의힘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23년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 치켜세웠다. 작년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사법 살인" "미친 판결"이라며 법원을 거칠게 공격했다. 내로남불이다. 여야 모두 20·30이 대거 연루된 이번 폭력 사태에 자신들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대법관들이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그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재판인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윤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

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주의' 처분만 내렸다. 지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들인 결과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제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잠식당해 무너진 美 민주당의 퇴장

광화문·뷰



김신영  
국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 전임 조 바이든은 초라하게 퇴장했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잃은 바이든의 민주당은 패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 재건에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예상한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공화당을 지지해 온 피터 틸이 미 대선 전후 한 인터뷰 몇 건을 최근 들었다. 틸은 민주당이 처절히 무너진 이유를 "광신적 좌파의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점령당한 끝에 스스로 붕괴했다"고 요약했다. "다양성이 중요하며 남의 생각을 막다니, 너무 모순적 아닙니까. '다양성 정치'의 미친 역설이랄까요"

인심을 멀어지게 한 민주당의 극단적 PC주의는 긴 시간에 걸쳐 자랐다. 승리의 도취감이 양분이 됐다. 민주당은 2008년 대선 때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만들어냈다는 자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안겨준 흑인 표에 집착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가 오바마를 만난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다. "미국 백인 남성의 수명이 마약·음주·자살로 줄어든다는 '절망의 죽음' 현상을 보고했

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잠깐, 흑인 수명은 늘었다고요? 그 얘기 좀 더 해 봐요' 라고 하더군요. 대답했습니다."

이 답답함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란 충격적 결과로 이어졌다. 틸은 "민주당이 그때 철저히 무너졌더라면 나왔을지 모른다. 그런데 4년 후 바이든이 당선되는 바람에 쇠신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 대선 무렵 흑인 인권 운동인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가 확산하자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소수 인종, 성 소수자

바이든이 초라하게 퇴장했다  
黨 재건은 오래 걸릴 전망이다  
그 실패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등을 끌어들이던 더 강력한 다양성 담론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겼다.

자신만만해진 PC주의는 폭력적이 됐다. 민주당 진영에선 '성(性) 중립 화장실' 등에 반대하면 '올바르지 않은 자'로 내몰리기 십상이었다. 할리우드가 대표하는 문화계는 이들의 취향에 맞춰 '획일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쏟아냈다. 틸은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그리고 주변의 합리적 진보주의자들이 그즈음 민주당에 질렸다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나치 역을 흑인 여성이 맡을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 다니까요. 정치인들이 미국의 퇴보나미

래 구상을 고민하기는커녕 화장실 분쟁에 힘을 쏟다니, 말이 됩니까."

선거 결과는 중도가 판가름한다. 틸의 말을 빌리면 "청년층·이민자 등 새로 유입되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판세가 움직인다. 통상 보수가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하지만 극렬분자들이 점령한 미 민주당 진영엔 이들의 새로운 목소리를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정권을 빼앗겼던 공화당은 반대로 유연해졌다. 지난 대선 때 구호로 다양성을 외친 건 민주당이었지만 실제로는 공화당 유세가 훨씬 다양해 보였다. 부통령 후보는 '흙수저' 출신 40대였고, 머스크는 배를 내놓고 뛰더니 스스로를 극우를 뜻하는 '다크 매가(MAGA)'라고 불렀다. 흑인 연사 일색에 '바른말'로 꾸민 민주당 유세장은 다른 세상처럼 낮설었다. 틸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 쪽이 스타워즈의 제국군, 공화당이 반란군 같았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칼럼니스트 페기 누넨은 무너진 민주당에 이런 진단을 내렸다. "민주당을 점령한 극렬분자들이 너무 왼쪽으로 간 나머지 (상식적) 진보와 단절 돼 버렸다. 이제 다시상식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의 정치도 극단으로 치달아 합리적 중도 유권자들은 마음 둘 곳을 잃고 있다. 미국과 차이가 있다. 여야 진영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다. 지고 싶지 않다면, 미국 민주당의 붕괴 과정을 먼저 연구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66]

고종 황제 초상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초상화다. 위엄 서린 황룡포가 무색하게 다소곳이 두 손을 모아 잡고 있다. 1898~1899년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화가 휘베르트 보스(Hubert Vos·1855~1935)가 직접 황제를 앞에 두고 그린 것이다. 보스는 로마와 파리에서 수학하고 런던에서 초상화가로 임지를 굳힌 뒤, 1893년 미국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참관했다. 시카고에서 그가 눈여겨본 건 아메리카 원주민, 이집트인과 에스키모 등 비서구권의 이국적인 여러 종족을 한데 모아 전시한 '인류학' 부문이었다. 보스는 이토록 다양한 인종이 사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길을 떠나 하와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중국을 두루 다녔다.

조선에서 왕의 초상이란 제도에 사용되는 국가의 상징이지, 이처럼 만민 앞에 전시되는 미술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쏟

아져 들어온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앞서 서양인이 들고 온 카메라 앞에서 데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낯선 벽안(碧眼)의 화가 또한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1899년, 화가와 함께 이 초상이 궁을 떠날 때, 신하들은 마치 고종의 몸을 때어가는 것처럼 여겼다고 전해지니, 모두가 서양화법의 사실성에 감탄했던 모양이다.

보스는 이후 청나라 서태후 초상까지 그려 들고 돌아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다양한 인종 유형'으로 전시했다. 일국의 군주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없는 이런 상황을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우나, 당시 서양인의 눈에는 대한제국이든 청나라든 그저 몰락한 변방의 부족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승하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3·1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포스트 교수·서양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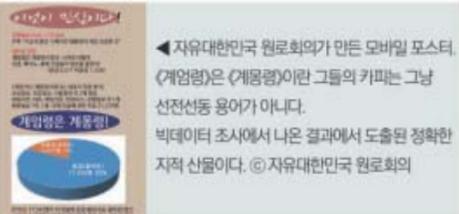


휘베르트 보스, 고종 황제의 초상, 1899년, 캔버스에 유채, 198.9×91.8cm, 개인 소장.

윤대통령 구속의 의미 1

자유 보수우파 지지 엄청 늘었다 ... 2030 비록 국민의 정치의식 급속히 계몽됐다

2030의 각성은 희망의 징조  
저들은 고작, 기껏, 하필, 풀랑 이재명  
우리는 전투적 자유 투사(당대의 최고 좌익 적수)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자유 보수 우파 진영의 일보 후퇴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다. 자유 보수 우파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전보다 왕창 늘었다. 기회주의 정파 언론에 대한 자유인들의 혐오도 강해졌다.

이런 추세를 뭘 뜻하는가? (다수 국민의 정치의식이 며칠 사이 급속하게 계몽되었음)을 말해 준다.

《지금까지의 대세는 좌익+기회주의》였다. 《586+4050+패미니즘》이, 정치·사회·대학·언론·문화 모든 부문을 장악했다. 그들은 바로 아래 세대 2030까지 빨아들였다.

그러나 계엄 후 갈등 과정에서 2030이 급격히 깨어났다. 《우파가 수구·꼰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와 보니 극좌야말로 진짜 (구체제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2030의 이런 각성은 향후의 자유 보수 우파의 투쟁을 위해 희망적 징조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2030과 6070이 손잡고 4050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 이런 기대가 있다면, 자유 진영은 앞으로든 끈질기게 싸워볼 만하다.

광화문·한남동 자유 인파는 유턴의 시작

자유 우파는 《죽을 각오로 싸우는 자만이 이길 자격을 얻는다》는 철칙을 깨달아야 한다. 태이날 적부터 오늘의 선진 한국이 하늘에서 자력으로 떨어져 있는 줄 알았다면, 그때 워 터무니없는 공짜 의식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

좌익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싸웠다. 그들은 감옥엔 수없이 들락거렸다. 민주화 운동을 게 도구로 만들었다. 그

리고 국가의 공권력 일부까지 게 도구로 먹어갔다. 그러곤 윤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잡아넣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자유 우파는 뭘 했나? 고난의 바닥을 쳐 봐야 《희망의 '유턴'》을 할 수 있다. 《광화문과 한남동 자유 인파는 그 [유턴의 시작]》이었다. 이제야 자유 우파도 투사가 되었다.

풀랑, 이재명!

그렇다면 절망은 이르다. 《자유 우파에게 유리한 상황》도 있다.

① 《이재명은 [그래도] 정치범 아닌 [중대 범죄 피고인]이란 엄연한 사실》이다. 그는 이 [신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좌익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그거다. 그들이 왕년에 뭘, 민주화 운동 어찌고저찌고? 그렇다면 지금은? 《고작, 기껏, 하필, 풀랑 이재명?》 똑팔러.

좌익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김문수

② 《자유 진영 차기 지도자감으로 김문수가 단연 1위로 떠오른 사실》이다. 《김문수는 당대 굴지의 [좌익의 입자]



《[꽃길 김문수]는 차파기가 가장 싫어하고 꺼려한다. 자신들의 차부, 약점, 전락, 전술, 공수 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다. 그는 《전투적 자유 투사 그 전형》이다. 좌익이 그를 가장 적대한다. 그가 자기들의 속을 뽐내 꿰뚫어 보니까 자유 국민이 그런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

